

대전디자인진흥원-특구재단, 지역 과학기술·디자인 융합 및 혁신 생태계 선도 맞손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5.08.06 15:57

6일 대전 과학기술·디자인 융합 서밋 간담회 개최



6일 대전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 과학기술·디자인 융합 서밋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은 6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전 과학기술·디자인 융합 서밋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희열 (前)과학기술부 차관,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장호종 (前)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등 산·학·연·관 주요 인사 11명이 참석해 대전의 과학기술과 디자인이 융합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에서 시작하는 딥테크 디자인 전략 논의 △대전디자인진흥원 소개 및 역할 제안, 과학기술과 디자인 결합 사업화 성공사례 공유, 각 팀별 사업 발표, 대덕특구와의 연계 등 실질적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술에 창의와 디자인을 더해야만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유기적 융합의 중요성 및 사업화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협력 방향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유희열 (前)과학기술부 차관은 “이제는 과학기술 연구를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니즈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요구가 디자인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현장에 디자인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대전 특구의 우수 연구성과와 기술 성과가 진흥원과 특구재단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연계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종 (前)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TRL(기술성숙도) 2~5단계의 기술은 대전의 뿌리산업과 연계해 시제품 제작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고도화 및 시장 진입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디자인-엔지니어링 융합 프로젝트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해석해 협력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화로 이어진 성공 사례도 소개됐다.

이창기 원장은 “과학기술과 디자인이 함께할 때 혁신 성장의 실질적 해법이 도출된다”며, “대전의 융합형 혁신 생태계 조성 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은 시장을 생각하는 전략적 틀이자, 기술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핵심도구”임을 강조하며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기반 기술 기획 허브’ 역할을 수행할 최적의 기관임을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정책 및 사업 기획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첨단과학기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